

폭격에 떨며 하루 1백명까지 상대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

2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메이지시대에 사쓰마 번주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독립된 류큐 왕국이었다. 정복된 뒤엔 사쓰마번과 차별되어 통치를 받았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뒤에는 미군 밑에 있었으나 경제사정이 일본 통치 때보다 더 힘들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3군을 오키나와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그 섬을 일본으로 복귀시켰다.

필자가 오키나와에서 만난 섬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패전 직전에 일본군에게 당한 배신감, 굴욕감, 억울함을 아직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감정이 한국 사람인 필자에게 호감을 갖게 한 모양이었고 위안부와 징용부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시위, 인권운동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젊은이들 중에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다. 독립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일본인과 다른 오키나와인이고 메이지시대까지 오키나와는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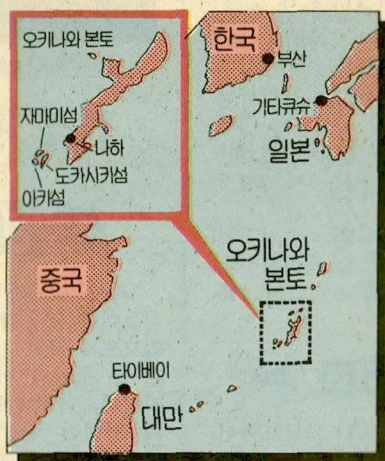
한국민족 쇄망책의 하나

1980년에 이어 두번째로 1988년 2월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김혜원·김신실 회원과 함께였다. 1980년에 만난 배봉기(75) 할머니에게서 좀더 이야기를 듣고, 도카시키템에 안치되어 있다는 '하루에'라는 위안부의 유골을 가지고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일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에의 유골이 실제로 있는지, 있을 경우 다음번에 인계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둘 계획이었다.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본격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결정한 1937년부터로 추정된다. 관동군의 만주 주둔이 장기화되고 중국 본토로 많은 일본군이 투입됨에 따라 한국 여성 연행을 생각해진 것이었다.

본래 일본군은 일본 매춘여성들을 위안부로 삼고 있었으나 군대 안에 성병이 퍼졌고, 중국 여성을 강간·유간하거나 접촉하다 성병이 옮기도 했다. 또 중국 여성 가운데는 첩자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성병이 없는 일본 미혼녀를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셋각해내 밭안이 식민지 하국의



포주에게 위안소 맡겨

위안부의 수요는 '니쿠이치'라 해서 일본 군인 29명에 한국 여성 1명으로 계산해냈다. 그러나 일본 패전 직전에는 위안부 한명이 하루에 일본 군인을 1백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1938년 무렵에는 군이 직영하는 '육군 오라소'를 두어 위안부를 감독했으나 안팎으로 물의를 빚자 일본인(더러 한국인도 끼어 있었다) 포주에게 위안소를 맡기고 군은 그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위안소를 방문하는 군인에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있었다. 할머니는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할머니!" 하고 불러도, 다카자토가 "뽕기 상!"하고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몸도 성치 않고 여전히 인간 기파중에 걸려 있어 조총련계의 김이라는 여성의 요청에만 응해 준다고 했다. 할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면 1980년 11월에 나를 만나준 것만도 감사할 뿐이었다.



인간기파중에 걸려 재작년 필자 일행의 면회를 끝내 거절하고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배봉기 할머니(가운데). 사진은 필자가 1980년에 만나 찍은 것이다.

미야기 하쓰에(66·여)와 그의 이웃 주민 2명, 도카시키템의 여관 '정구시소'의 주인 고하구라 겐기,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가 살았던 '빨간 기와지붕의 집' 주인인 딸 나가무라 하쓰코(62) 등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빨간 지붕집' 딸의 회상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1944년 9월에 일본군이 도카시키템, 자마미, 아카섬에 자리를 잡았고 10월10일에는 연합군이 무섭게 공습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1944년 11월에 나하에 도착했다. 입을 벌리고 있



위안부들이 일본군인들을 상대하던 '빨간 지붕의 집'

낸 셈이라 이곳에 닿았을 때는 30살이 되어 나이든 편이었다. 제일 나이 어린 밭찬과 아이코는 늘상 우는 빛이었으며, 폭격이 심해지자 모두들 아리랑을 부르며 울었고 그중에서 기쿠마루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두고온 아기 생각에 눈물

필자는 하쓰코에게 이 여성들이 속아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인 것을 섬 사람들이 알고있었는지와 하루에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섬 사람들도 다 그들이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하루에는 교양이 있어 보였으며 일본말도 조금 했다고 했다.

아마다니 데쓰오의 <오키나와의 할머니>(1979년)에 의하면 결혼 해서 아기가 있는 하루에는 눈을 딱 감고 군대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려고 돌아가려고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선 여성이었다. 하루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지 필자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에를 놓고 도카시키템에 주둔한 장교와 위안부를 인솔해 온 군인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장교가 이겼다고 한다. 어쩌다 틈이 나면 하루에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아기 생각을 하며 정신대가 이런 일인 줄 몰랐다며 늘 울었다고 했다.

연합군의 폭격은 갈수록 심해져 1945년 3월23일과 24일의 공습은 무서웠다. 일본군은 섬 사람들에게 산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했다. 이 공습으로 위안소였던 빨간지붕의 집이 폭격을 당했다. 일본군은 한국 징용병들에게 수도 없이 참호를 파게 하고 식량이 달라지자 먹을 것을 훔치게 했다.

아카섬 주민들에 의하면 이 섬에 끌려왔다가 간 한국 징용부 가운데 10명이 1987년에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가 일본군에게 집단학살을 당했다고 기억되는 지점, 섬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파보았다. 과연 그곳에서 사람의 뼈가 많이 나왔다. 이 장면은 그곳 텔카미정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추모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갔다"고 하며 "더러운 것이 일본 군인"이라고 치를 떨었다.

도카시키템의 위안부 중에서는 배봉기 할머니와 아이코만 살아 남았다. 징용부 1백50명 중에서는 몇명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도카시키템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는 '청년의 집'이 있고 그 못 미처 오른쪽 오솔길로 들어가면 '백옥탑'이 서 있다. 1962년 3월27일에 태평양전쟁 때 죽은 희생자들을 안치하고 세운 것이다.

아마다니의 <오키나와의 할머니>에 의하면 도카시키템 사람들은 하루에의 고향사람들이 찾아오면 돌려주려고 그의 유골을 이 탑에 안치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탑에 새겨진 명단에서 하루에라는 이름을 찾지 못했고 아쿠쇼라는 동사무소에 가 보았으나 하루에만 아니라 위안부나 징용부의 유골이 따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또 탑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 중에 과연 위안부와 징용부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신이상 걸려 배회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과 함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오키나와 본토에 다시 모인 위안부는 그곳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미군 상대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할머니는 미군이 상륙할 때 죽는 줄만 알고 절망감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 폭격 속에서 간호일 하라, 밥 지으라, 빨래하라, 먹을 것을 찾으라 산을 헤매라, 탄약 나르라, 밤에는 '위안하라' 일본군에 혹사당해 몸이 기진맥진했지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그는 일본군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 일본이 이겨야 자기도 살 수 있고 미군이 상륙하면 다 끔찍하게 죽이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하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 그 도시의 변화가

여러 섬에 흩어지자 '아리랑' 부르며 무서움 달래 일본 패전뒤엔 미군위안부로 전략 고향땅 못밟아



으면 바나나가 떨어진다는 낙원은 간데 없고, 폭격으로 건물들은 파괴되고 모두 피난가 아무도 없는 폐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뒤 다시 배에 실려 도카시키템·자마미·아카섬에 7명씩 배치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도카시키템의 여자청년단은 일본군에 찾아가 위안소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안소가 이 고장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쉽게 설득당했다.

위안소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오키나와의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빨간기와지붕의 좋은 집에 마련되었다. 배봉기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

2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메이지시대에 사쓰마 번주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독립된 류큐 왕국이었다. 정복된 뒤는 사쓰마번과 차별되어 통치를 받았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뒤에는 미군 밑에 있었으나 경제사정이 일본 통치 때보다 더 힘들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3군을 오키나와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그 섬을 일본으로 복귀시켰다.

필자가 오키나와에서 만난 섬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패전 직전에 일본군에게 당한 배신감, 굴욕감, 억울함을 아직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감정이 한국 사람인 필자에게 호감을 갖게 한 모양이었고 위안부와 징용부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시위, 인권운동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젊은이들 중에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다. 독립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일본인과 다른 오키나와인이고 메이지시대까지 오키나와는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민족 쇄망책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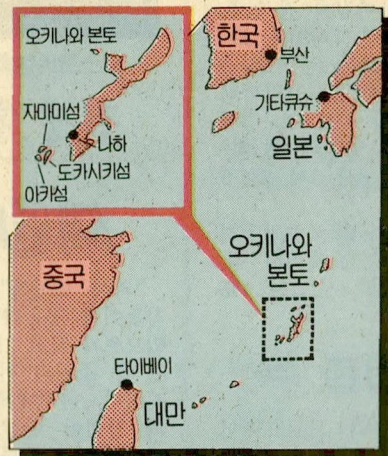
1980년에 이어 두번째로 1988년 2월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김혜원·김신실 회원과 함께였다. 1980년에 만난 배봉기(75) 할머니에게서 좀더 이야기를 듣고, 도카시키템에 안치되어 있다는 '하루에'라는 위안부의 유골을 가지고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일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에의 유골이 실제로 있는지, 있을 경우 다음번에 인계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줄 계획이었다.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본격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결정한 1937년부터로 추정된다. 관동군의 만주 주둔이 장기화되고 중국 본토로 많은 일본군이 투입됨에 따라 한국 여성 연행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본래 일본군은 일본 매춘여성을 위안부로 삼고 있었으나 군대 안에 성병이 퍼졌고, 중국 여성을 강간·유간하거나 집착하다 성병이 옮기도 했다. 또 중국 여성 가운데는 첩제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성병이 없는 일본 미혼녀를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안이 '식민지 한국의 17~20살의 미혼여성을 데려가는 일'이었다. 일본은 대부분 유교를 믿는 한국 가정이 딸들에게 엄하게 정교교육을 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민족 쇄망책의 하나로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쓴 것이었다. 민족을 쇄되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기반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여성을 파괴시키는 일이 지름길이라고 착안한 것이라고 제일동포 김일면씨는 그의 책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76년)에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의 성의 위안물이 라고 생각하는 여성 멸시사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중군 위안부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상과 남성 위주의 여성 멸시사상이 낳은 국책이라 할 수 있겠다.



포주에게 위안소 말거

위안부의 수요는 '니쿠이치'라 해서 일본 군인 29명에 한국 여성 1명으로 계산해냈다. 그러나 일본 패전 직전에는 위안부 한명이 하루에 일본 군인을 1백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1938년 무렵에는 군이 직영하는 '육군 오락소'를 두어 위안부를 감독했으나 안팎으로 물의를 빚자 일본인(더러 한국인도 끼어 있었다) 포주에게 위안소를 맡기고 군은 그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위안소를 방문하는 군인에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있었다. 할머니는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할머니!" 하고 불러도, 다카자토가 "뽕기 상!"하고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몸도 성치 않고 여전히 인간 기피증에 걸려 있어 조총련계의 김이라는 여성의 요청에만 응해준다고 했다. 할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면 1980년 11월에 나를 만나준 것만도 감사할 뿐이었다.



인간기피증에 걸려 재작년 필자 일행의 면회를 끝내 거절하고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배봉기 할머니(가운데). 사진은 필자가 1980년에 만나 찍은 것이다.

여러 섬에 흩어지자 '아리랑' 부르며 무서움 달래 일본 패전뒤엔 미군위안부로 전략 고향땅 못밟아



위안부와 연애하지 말 것, 위안소에 들어가서 30분(어떤 곳은 40분) 이상 있지 말 것, 콘돔을 반드시 사용할 것, 위안부는 공동소유라는 생각을 철저히 할 것 등이다. 일본군에게 위안부는 공중변소 같은 물건이었다.

아직도 '사람 기피증'

오키나와 나하에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는 이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필자 일행이 나하시의 매춘여성 담당관리인 다카자토 스즈요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는 먼저 살던 집보다 나은 아파트에 살고

배봉기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이북땅 홍남이다. 가와다 후미코의 <빨간 기와지붕의 집>(1987년)이라는 논픽션을 보면 1943년 할머니가 29살 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지는 곳"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어떤 여자 소개인을 따라나섰다고 했다.

우리는 1988년 2월19일 오키나와 나하에서 서쪽으로 55km지점에 있는 도카시키템 자마미섬을 찾아갔다. 하루에와 배봉기 할머니가 있던 곳이 도카시키템이다. 이 섬에서 우리는 다카자토의 소개로 오키나와의 주민

미야기 하쓰에(66·여)와 그의 이웃 주민 2명, 도카시키템의 여관 '정구시소'의 주인 고하구라 켄기,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가 살았던 '빨간 기와지붕의 집' 주인의 딸 나카무라 하쓰코(62) 등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빨간 지붕집' 딸의 회상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1944년 9월에 일본군이 도카시키템, 자마미, 아카섬에 자리를 잡았고 10월10일에는 연합군이 무섭게 공습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1944년 11월에 나하에 도착했다. 입을 벌리고 있



위안부들이 일본군인들을 상대하던 '빨간 지붕의 집'

낸 썬이라 이곳에 닿았을 때는 30살이 되어 나이드는 편이었다. 제일 나이 어린 밋찬과 아이코는 늘상 우는 빛이었으며, 폭격이 심해지자 모두들 아리랑을 부르며 울었고 그중에서 기쿠마루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두고온 아기 생각에 눈물

필자는 하쓰코에게 이 여성들이 속아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인 것을 섬 사람들이 알고있었는지와 하루에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섬 사람들도 다 그들이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하루에는 교양이 있어 보였으며 일본말도 조금 했다고 했다.

야마다니 테쓰오의 <오키나와의 할머니>(1979년)에 의하면 결혼 해서 아기가 있는 하루에는 눈을 딱 감고 군대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려고 돌아가려고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신 여성이었다. 하루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는지 필자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

에를 놓고 도카시키템에 주둔한 장교와 위안부를 인솔해 온 군인 사이에 생탈전이 벌어졌는데 장교가 이겼다고 한다. 어쩌다 틈이 나면 하루에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아기 생각을 하며 정신대가 이런 일인 줄 몰랐으며 늘 울었다고 했다.

연합군의 폭격은 갈수록 심해져 1945년 3월23일과 24일의 공습은 무서웠다. 일본군은 섬 사람들에게 산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했다. 이 공습으로 위안소였던 빨간지붕의 집이 폭격을 당했다. 일본군은 한국 징용병들에게 수도 없이 참호를 파게 하고 식량이 달라져 먹을 것을 훔치게 했다.

아카섬 주민들에 의하면 이 섬에 끌려왔다가 간 한국 징용부 가운데 10명이 1987년에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가 일본군에게 집단학살을 당했다고 기억되는 지점, 섬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파보았다. 과연 그곳에서 사람의 뼈가 많이 나왔다. 이 장면은 그곳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한국 징용부들은 뼈를 파낸 곳에 태극기를 꽂아놓고 유골을 본국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조선말 쓴다"고 죽이기도

일본군은 한국 징용부도, 오키나와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자기들이 수상쩍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모국어를 쓰는 사람에겐 폭력을 가하고 서슴없이 죽였다는 것이다.

하루에는 1945년 3월23일 대공습 때 부상당해 산속 참호로 옮겨졌으나 죽었다. 밋찬과 아이코도 죽었다. 징용부도 오키나와 사람들도 일본 군인도 죽고 부상했다. 이수라 장 속에서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생겼다. 고하구라 켄기는 "일본 군인은 참호속에 피난해 있는 오키나와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갔다"고 하며 "더러운 것이 일본 군인"이라고 치를 떨었다.

도카시키템의 위안부 중에서는 배봉기 할머니와 아이코만 살아 남았다. 징용부 1백50명 중에서는 몇명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도카시키템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는 '청년의 집'이 있고 그 못 미처 오른쪽 오솔길로 들어가면 '백옥담'이 서 있다. 1962년 3월27일에 태평양전쟁 때 죽은 희생자들을 안치하고 세운 것이다.

야마다니의 <오키나와의 할머니>에 의하면 도카시키템 사람들은 하루에의 고향사람들이 찾아오면 돌려주려고 그의 유골을 이 탑에 안치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탑에 새겨진 명단에서 하루에라는 이름을 찾지 못했고 야쿠소라는 동사무소에 가 보았으나 하루에뿐 아니라 위안부나 징용부의 유골이 따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또 탑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 중에 과연 위안부와 징용부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신이상 걸려 배회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과 함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오키나와 본토에 다시 모인 위안부는 그곳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미군 상대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할머니는 미군이 상륙할 때 죽는 줄만 알고 절망감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 폭격 속에서 간혹일 하라, 밥 지으라, 빨래하라, 먹을 것을 찾으러 산을 헤매라, 탄약 나르라, 밤에는 '위안'하라 일본군에 혹사당해 몸이 기진맥진했지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그는 일본군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 일본이 이겨야 자기도 살 수 있고 미군이 상륙하면 다 끔찍하게 죽이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하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 그 도시의 변화가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만세 부르듯이 두팔을 쳐들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를 외쳤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부였는데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중 어떻게 뛰쳐나와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전후에도 살아남은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들이 왜 끌려와서 그런 인간 이하의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몰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근원적인 자아 속에 숨쉬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지 못한 한 그리고 제정신 가지고는 말을 못했던 울분을 쏟아냈던 것은 아니었는지...